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무인사처 총무부 김순도 부장(061-338-6041) / 제공일: 2021. 10. 22 (총 1매)

농어촌공사, 올해 농촌 노후주택 119곳 주거환경개선

- 농촌집고쳐주기, 2008년부터 올해까지 농촌 취약계층 총 1,589가구에서 봉사
- 나주시 남평읍 1인 취약가구에서 지붕 누수 보수작업 등 농촌 집고쳐주기 활동



-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22일 나주시 남평읍 1인 취약가구에서 지붕 누수 보수 작업과 벽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집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.
- ‘농촌 집고쳐주기’ 는 2008년부터 공사가 다솜등지복지재단과 함께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으로 지금까지 전국 1,589채에 달하는 집을 고쳤다.
- 올해는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농어촌 노후주택 119곳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.
- 김인식 사장은 “농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있는 농촌을 만드는 ESG경영을 실천하겠다” 고 말했다.